

11월 29(월) / 딤전 4-6

▶ **내용요약** : 디모데전서 4장에서 바울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주의하도록 교훈했다. 특히 그들이 금하거나 제한하는 것에 미혹되지 말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했다. 또한 오직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도록 했다. 5장에서 바울은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교훈했다. 목회자로서 담대히 권하되, 겸손과 사랑의 태도로 해야 하고, 특별히 직분자를 세울 때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또한 디모데의 질병을 위한 실제적이고 따뜻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바울은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 특히 물질에 대한 목회자의 태도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권면하며 편지를 맺었다.

▶ **질문** : 무엇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가? (6장)

▶ **생각하기** :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신학적인 지식뿐 아니라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와 품격,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실제적인 조언들을 해주었다. 바울은 단순히 앞에서 이끌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리더였던 것이다.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리더들을 더 많이 세워주시길,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런 리더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자.

12월 2일(목) / 히 1-3

▶ **내용요약** :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이 편지가 1차적으로는 유대적 배경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록된 것임은 틀림없다. 히브리서 1장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음을 선포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며,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시다. 계속해서 2장은 그 아들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었으나,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께 복종하고 있음을 증언했다. 그리고 3장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예수께서는 모세보다도 더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며,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한다고 말했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3장)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신 ()를 깊이 생각하라”

▶ **생각하기** :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말씀 안에서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예배(삶을 포함)는 보다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분을 날마다 더 사랑하자. 그분과 매일 더 가까워지자!

12월 5일(일) / 히 10-13

▶ **내용요약** : 히브리서 10장은 율법을 참 형상이 아닌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재차 강조했다. 구약의 제사 특히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가 완전히 제거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얻게 하셨다. 그분이 드린 단 하나의 영원한 제사로 모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하게 하신 것이다. 11장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대해 교훈하고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11월 30일(화) / 딤후 1-4

▶ **내용요약** : 디모데후서는 죽음을 앞둔 바울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다. 1장에서 바울은 옥에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했다. 실제로 당시에 적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2장에서 바울은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에게 배운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기라고 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 자신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재차 강조했다. 3장에서 바울은 마지막 때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경건하지 못한 모든 것을 경계하고 멀리하도록 교훈했다. 또한 이단 사상을 배격하고 배우고 확실한 일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늘 가까이 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개인적인 부탁을 남기며 편지를 맺었다.

▶ **질문** :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은? (3장)

▶ **생각하기** : 바울은 반복적으로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다. 이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각별한 사랑과 그의 목회자적 태도를 보여준다. 목회자는 자신의 제자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여겨야 한다. 그리고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보살펴주어야 한다. 모든 교회와 신앙 공동체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도 또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자.

12월 3일(금) / 히 4-6

▶ **내용요약** : 히브리서 4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심을 선포 하면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5장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직무와 조건 등을 설명하고, 그것을 예수님과 비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대제사장이라는 것이다. 한편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로 나아가도록 교훈했다. 무엇보다 변절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붙잡아야 함을 강조했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각각 채우시오. (4장)
“우리에게 있는 ()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는 없으시니라”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를 묵상하는 것만큼 안심이 되는 것도 없다.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또한 그분은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못 지키시는 분도 아니고, 지혜가 부족하셔서 잘못된 약속을 하시는 분도 아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자. 그리고 영원한 평안을 누리자.

12장은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면서 더욱 죄와 싸워야 함을 강조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이다. 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마지막 13장은 서로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며, 음란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도록 교훈했다. 무엇보다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말고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고 권면했다.

12월 1일(수) / 딤1 - 몬1

▶ **내용요약** :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섬의 목회자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다.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 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그레데 지역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었다. 2장에서 바울은 오직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하도록 교훈했다. 그 외에도 목회자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업신여김을 받지 말고 오히려 진리 안에서 권면하고 책망하라고 말했다. 또한 복음의 소망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고 선한 일을 힘있게 하라고 명하며 편지를 맺었다. 한편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위해 바울이 쓴 편지이다. 오네시모는 자신의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쳤다가 바울을 만나 회심했다. 이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해 주기를 부탁했다. 심지어 그로 인해 손해를 본 것이 있다면 자신이 대신 갚겠다는 말까지 잊지 않았다.

▶ **질문** : 빌레몬의 노예였다가 바울을 만나 회심한 사람은? (몬 1장)

▶ **생각하기** : 빌레몬서는 바울의 편지 중에서도 가장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다. 신학적인 교리가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복음의 메시지가 그 어떤 편지보다도 더 진하게 배어 있다. 이처럼 삶은 그 어떤 전공서적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다.

12월 4일(토) / 히 7-9

▶ **내용요약** :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십분의 일을 취하고 그를 위해 축복했음을 상기시키면서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심을 재차 선언했다. 이어서 8장부터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께서 세우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이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9장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으며,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써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음을 증언했다.

▶ **질문** :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겨진 사람은? (7장)

▶ **생각하기** : 성경 즉 신구약 66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을 예비하셨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규율을 통해 그것을 끊임없이 계시하셨다. 성경을 읽을 때, 모형과 그림자만 주목하느라 예수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의 완성자이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11장)
“()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를 얻었느니라”

▶ **생각하기** :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드리심으로써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단번에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다른 구원자를 기다리거나 찾을 필요가 없다. 기억하자. 우리의 구원자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다.